

# 경북도 “원전건설 재개하고 피해 보상해야”

###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1·2호기 운영허가 건의하기로 원전자율유치금 사용승인 요구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산업이던 원전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2일 산업부의 방침으로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한수원은 이 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뤄오다 지난달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 이 날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 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는 2년 가까이 연기돼 왔는데 이 가운데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다음달 가동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는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 구역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북도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올년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와 함께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은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 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에 따라 원전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로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의 지역주민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탄소제로 에너지 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전남농협,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전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불법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현수막 홍보를 시작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남농협 직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박우량 신안군수, ‘스테이스트롱캠페인’ 동참

박우량 신안군수가 23일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박우량 군수는 다음 릴레이 캠페인의 참여자로 박정현 부여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재홍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전남=안행주 기자

## 여수 남면 장지항, 어촌뉴딜 선도사업 선정

### 총 사업비 최대 108억 투입 전망 어부밥상 등 조성, 어촌 활력 기대

여수시가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 선도 사업’에 남면 장지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평가와 종합 평가를 거쳐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사업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8일 올해 전국 60개 어촌뉴딜 사업지 중 여수시 장지항, 거제시 여차항, 삼척시 초곡항 3개소를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장지항은 앞으로 총사업비 78억 원에 10~20억 원



전남 여수시 남면 장지항.

/뉴스

의 추가사업비를 받게 되며, 해수부에서 코디네이터를 위촉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전문가 자문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한다.

/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 부산시 “코로나 검사때 방역택시 타세요” CNN 등 세계 외신, 신안 ‘퍼플섬’ 주목

### 의심환자만 수송... 전국 최초 선포

부산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방역택시(사진)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은 부산시 1호 가맹면허를 받은 향토기업 리라소프트의 ‘토마토 택시’가 맡는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 구급차를 우선 이용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차 또는 도보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차나 도보 이동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보건소 방문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방역추진단이 중심이 돼 지속해서 방역택시 도입을 요청했으며 택시 내 비말을 차단하는 차단막과 소독제,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택시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다.

토마토 택시 측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토마토 택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지정된 차량과 종사자만으로 운행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배차된다.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방역택시는 3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방역택시 예약은 토마토 택시 콜센터(1668-1982)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토마토 택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다. 요금은 일반택시와 동일하다. 특히 방역택시로 자택에서 목적이진 보건소에 도착한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동안에는 대기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타고 온 방역택시를 그대로 이용해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관광 마케팅 주효... 꿈의 섬”

세계 최대 언론사 CNN이어 폭스뉴스도 신안의 ‘퍼플섬’을 주목하고 대대적으로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CNN은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반월도를 소개하면서 8장의 사진과 함께 ‘퍼플섬’의 여행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섬의 개관과 보랏빛 섬으로 재탄바꿈한 각 과정을 설명하고 CNN은 섬의 재탄장에 대해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라고 규정하고 최근 관광객 증가를 볼 때 그 시도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CNN이어 폭스뉴스도 지난 19일(현지시간) ‘퍼플섬’의 독창성을 조명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반월도는 퍼플섬으로 만든 후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핫토픽”란에 올렸다.

“퍼플섬”이 코로나19로 국제여행이 제한되면서 수천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일일 여행지로 인스타그램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보라색의 천국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퍼플섬”은 지난해 독일 최대 위성 TV 방송 프로지벤(Prosieben)와 홍콩의 유명 여행 잡지 U magazine에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신안군은 2007년 퍼플교부터 보라색을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퍼플섬’을 조성해왔다.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풀꽃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라색 섬으로 컨셉을 정하고 목교와 해안 산책로의 라벤더·자목련·수국, 마을 지붕, 작은 창고의 벽, 앞치마와 식기 및 커피잔까지 보라색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를 컬러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 최대 미국 언론에서까지 보도되고 있어 퍼플섬(반월·박지도) 주민들의 노고가 빛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센터에 승합차 지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2일 상주시지역자활센터에 승합차(스타렉스) 1대를 전달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상주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총 36대 차량을 지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과 전우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 두번째) 승합차 전달식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김홍희 기자 gi2136@

### 광양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시행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1일~2022년 2월 10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11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전남=김용학 기자